산업통상부 | 보도자료 |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0. 15.(수) 10:00 < 10.15.(수) 석간 > 배포 2025. 10. 14.(화)

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206.5억 달러(△18.0%), 도착 112.9억 달러(△2.0%)

- 상반기 감소 여파,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신고 감소, **AI 분야** 투자는 지속
- **그린필드 도착(+23.0%)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실질적 효과 기대

【총괄】 2025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8.0% 감소한 206.5억 달러, 도착은 2.0% 감소한 112.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신고】 **2025년 3분기 투자신고**는 206.5억 달러(△18.0%)를 기록하였다. 작년 3분기 역대 최대 투자신고 실적(251.8억 달러) 달성에 따른 逆기저 효과가 나타나며, 투자 의향을 의미하는 투자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지난 5년 평균 누적 3분기 신고 수준인 203.5억 달러를 소폭 상회하였다. 3분기 누적 순위는 역대 4위로, '25년 상반기 순위(5위)에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유형]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77.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M&A는 M&A 시장 위축에 따른 대형 인수 건이 현저히 줄어들며 전년 동기 대비 54.0%로 대폭 감소(28.8억 달러)하여 전체적인 투자 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국가] 미국은 화공, 유통, 정보통신 업종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며 58.9% 증가(49.5억 달러)하였다. 그러나 **EU**(25.1억 달러, △36.6%), **일본**(36.2억 달러, △22.8%), **중국**(28.9억 달러, △36.9%) 등은 감소하였다.

[업종] 제조업은 87.3억 달러(△29.1%)를 기록하였다. 운송용 기계(8.8억 달러, +27.2%), 기타제조(2.0억 달러, +93.4%) 등에서 증가하고, 전기·전자(28.5억 달러, △36.8%), 화공(24.3억 달러, △13.8%) 등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서비스업**(111.1억 달러, △6.9%)은 유통(20.8억 달러, +122.5%), 정보통신(17.9억 달러, +25.7%), 업종 위주로 신고가 증가하고, 금융·보험(41.3억 달러, △43.6%) 등에서 하락하였다. 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S/W, 로보틱스 등 **정보통신업**(17.9억 달러, +25.7%)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대한 신고가 지속되었다.

【투자도착】 **2025년 3분기 투자도착**은 1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하여, '24년 3분기(115.1억 달러) 수준을 소폭 하회하였다.

[유형]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 도착이 전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한 82.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M&A 자금 도착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30.7억 달러, △36.5%)하였다.

[국가] **미국**(29.9억 달러, +99.7%)·**중국**(4.5억 달러, +35.5%) 도착은 증가한 반면, EU(24.8억 달러, △41.8%), **일본**(4.5억 달러, △60.5%) 도착은 감소하였다.

[업종] **제조업**(29.7억 달러, △25.5%)은 화공(13.6억 달러, +80.9%), 운송용기계(1.4억 달러, +6.9%) 등 분야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고, 전기·전자(7.9억 달러, △37.7%), 기계장비·의료정밀(3.1억 달러, △43.3%) 등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서비스업**(78.6억 달러, +10.3%)은 유통업(15.4억 달러, +210.3%), 정보통신(10.8억 달러, +24.1%)등 업종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AI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주행S/W, 로보틱스 등 **정보통신업**(10.8억 달러, +24.1%)을 중심으로 **AI 분야**에 대한 도착이 지속되었다.

【평가 및 정책방향】 ①상반기 국내 정치상황 불안, ②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 ③**M&A 시장 위축**으로 인한 대형 M&A 감소로 3분기(누적) 신고 실적은 감소하였다. 또한, **작년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따른 逆기저 효과와 작년 대비 상승한 환율 효과**(1~3분기 평균환율 4.4% 상승)가 함께 작용하여, **감소폭이 확대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 중심의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투자 도착은 작년 3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고된 투자 건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입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국내외 잠재적 투자기업 발굴·유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타겟팅한 해외 IR**,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하는 **지역순회 IR** 등 다양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를 위해 △'25년 발족한 **FDI 이행지원단**을 통하여 FDI 프로젝트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과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을 따름

○ 본 자료는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 2025년 하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6년 1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4080)
	투자유치과	담당자	사무관	김해원 (044-203-40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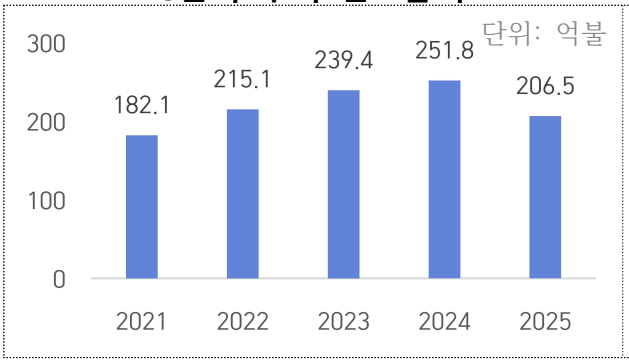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5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상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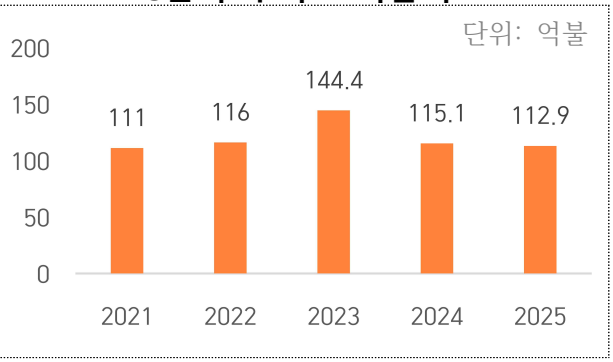
Ⅰ. 총괄

□ (실적) 신고 206.5억불(전년동기대비 △18.0%), 도착 112.9억불(△2.0%) * 잠정치

< 3분기 누적 신고금액 >



< 3분기 누적 도착금액 >



□ (신고) 상반기 국내 정치상황 불안정,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 환율 상승* 등으로 3분기 누적 실적 감소

* 1~9월 평균환율 (원/달러): ('24) 1,352.85 → ('25) 1,412.79로 4.4% 상승

○ (유형) 그린필드 소폭 감소, M&A 대폭 감소

* 그린필드 177.7억불(△6.1%), M&A 28.8억불(△54.0%)

○ (국가) 미국(데이터센터,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 증가
일본·EU·중국發 투자는 감소

* 美 49.5억불(+58.9%), EU 25.1억불(△36.6%), 日 36.2억불(△22.8%), 中 28.9억불(△36.9%)

○ (업종)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감소

* 제조업 87.3억불(△29.1%), 서비스업 111.1억불(△6.9%)

□ (도착) 기존에 투자 신고된 건들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며 '24년 3분기 도착(115.1억불) 대비 소폭 감소(△2.0%)

○ (유형) 그린필드(데이터센터,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중심) 증가, M&A 감소

* 그린필드 82.1억불(+23.0%), M&A 30.7억불(△36.5%)

○ (국가) 미국·중국 증가, EU·일본 감소

* 미국 29.7억불(+99.7%), 중국 4.5억불(+35.5%), EU 24.8억불(△41.8%), 일본 4.5억불(△60.5%)

○ (업종)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 증가(데이터센터, 유통업 중심)

* 제조업 29.7억불(△25.5%), 서비스업 78.6억불(+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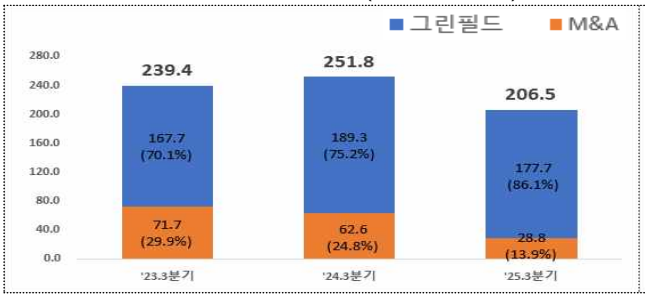
Ⅱ. 세부 동향(유형별·국가별·업종별·자금별·지역별)

【투자신고】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형(177.7억불, △6.1%, 비중 86.1%), M&A형(28.8억불, △54.0%, 비중 13.9%) 모두 감소

< 유형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유형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그린필드형) 177.7억불(전년比 △6.1%)

- 제조업(82.2억불, △25.6%) 감소, 서비스업(87.7억불, +25.2%) 증가

○ (M&A형) 28.8억불(전년比 △54.0%)

- 제조업(5.1억불, △59.6%), 서비스업(23.4억불, △52.5%)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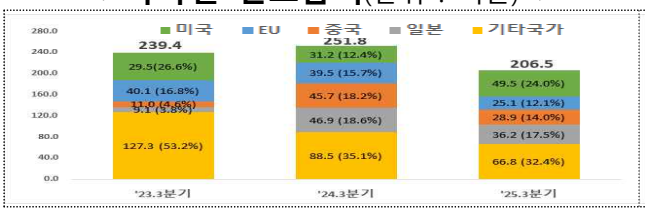
□ (건수) 그린필드(2,548건, +4.3%), M&A(235건, +13.0%) 모두 증가

2.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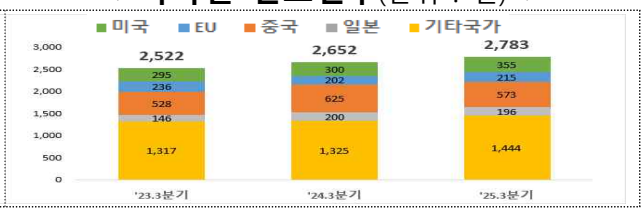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49.5억불, +58.9%, 비중 24.0%) 증가, EU(25.1억불, △36.6%, 비중 12.1%)·일본(36.2억불, △22.8%, 비중 17.5%)·중국(28.9억불, △36.9%, 비중 14.0%)·기타국가(66.8억불, △24.5%, 비중 32.4%) 감소

< 국가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국가별 신고건수(단위 : 건) >



ㅇ (미국) **49.5억불**(전년比 +58.9%, 비중 24.0%)

- (업종) **제조업**(20.5억불, +63.4%), **서비스업**(28.5억불, +93.0%) 모두 **증가**
- (유형) **그린필드**(47.3억불, +67.4%) **증가**, **M&A**(2.2억불, △23.5%) **감소**

ㅇ (EU) **25.1억불**(전년比 △36.6%, 비중 12.1%)

- (업종) **제조업**(9.2억불, △52.1%), **서비스업**(13.6억불, △30.0%) 모두 **감소**
- (유형) **그린필드**(17.8억불, △31.7%), **M&A**(7.3억불, △46.0%) 모두 **감소**

ㅇ (중국) **28.9억불**(전년比 △36.9%, 비중 14.0%)

- (업종) **제조업**(16.0억불, △56.6%) **감소**, **서비스업**(11.6억불, +42.4%) **증가**
- (유형) **그린필드**(28.8억불, △36.3%), **M&A**(0.1억불, △87.5%) 모두 **감소**

ㅇ (일본) **36.2억불**(전년比 △22.8%, 비중 17.5%)

- (업종) **제조업**(32.5억불, △23.8%), **서비스업**(3.8억불, △12.3%) 모두 **감소**
- (유형) **그린필드**(35.8억불, △13.6%), **M&A**(0.5억불, △91.5%) 모두 **감소**

ㅇ (기타국가) **66.8억불**(전년比 △24.5%, 비중 32.4%)

- (업종) **제조업**(9.1억불, △23.0%), **서비스업**(53.7억불, △26.3%) 모두 **감소**
- (유형) **그린필드**(48.1억불, △0.7%), **M&A**(18.7억불, △53.3%)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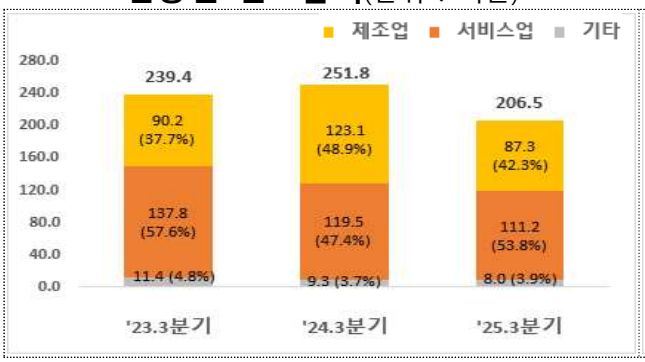
□ (건수) **미국**(355건, +18.3%)·**EU**(215건, +6.4%)·**기타국가**(1,444건, +9.0%) **증가**, **일본**(196건, △2.0%)·**중국**(573건, △8.3%) **감소**

3. 업종별

□ (금액) **제조업**(87.3억불, △29.1%, 비중 42.3%)·**서비스업**(111.2억불, △6.9%, 비중 53.8%)·**기타업종**(8.0억불, △13.8%, 비중 3.9%) **모두 감소**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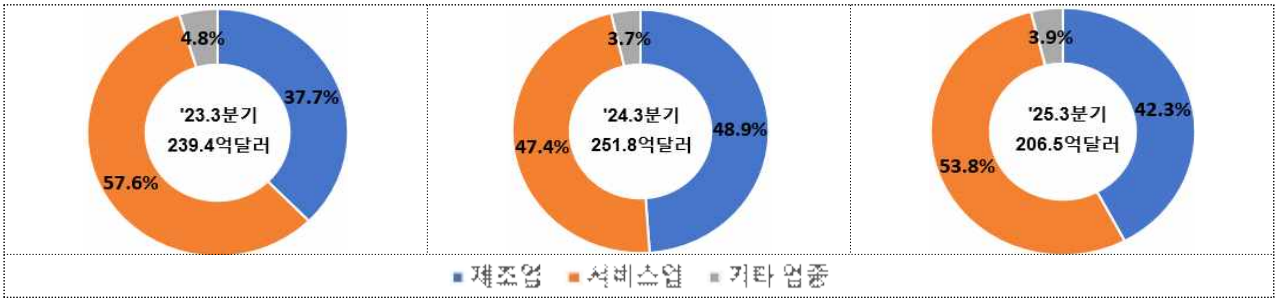
< **업종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업종별 신고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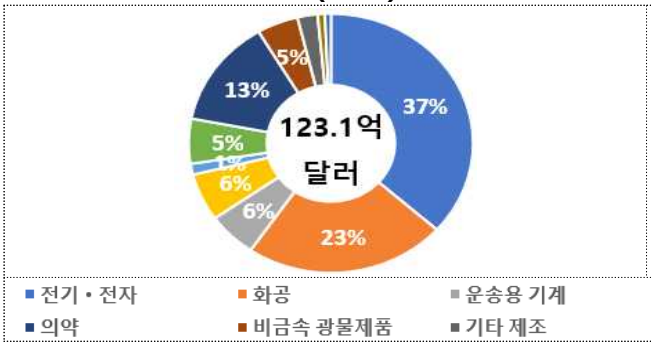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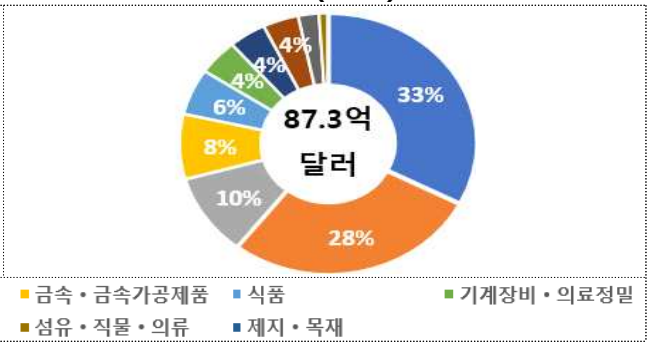


○ **(제조업) 87.3억불**(전년比 △29.1%, 비중 42.3%)

< '24년 3분기(누적) 신고액 >



< '25년 3분기(누적) 신고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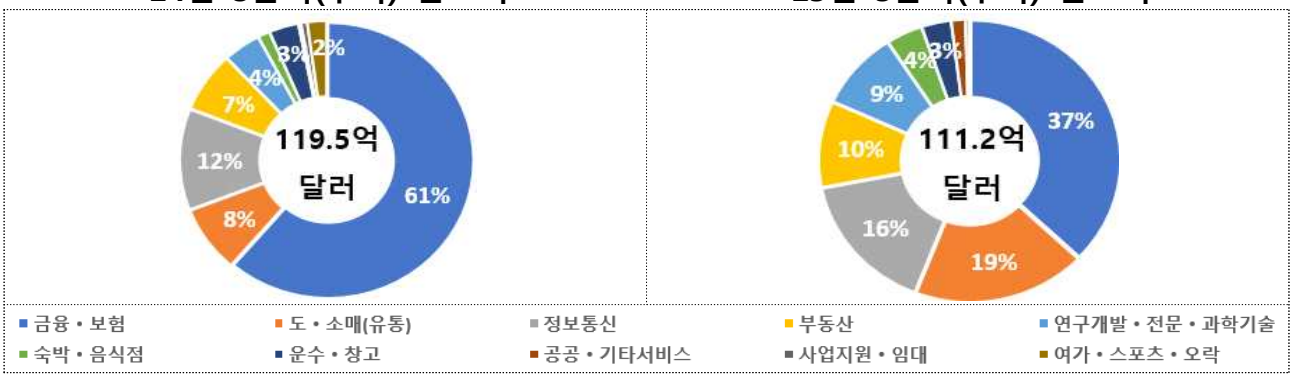
- **(증가업종) 운송용 기계**(8.81억불, +27.2%), **식품**(4.98억불, +198.5%), **기타제조**(1.97억불, +93.4%) **등**

- **(감소업종) 전기·전자**(28.49억불, △36.8%), **화공**(24.34억불, △13.8%), **금속·금속가공**(7.04억불, △3.3%) **등**

○ **(서비스업) 111.2억불**(전년比 △6.9%, 비중 53.8%)

< '24년 3분기(누적) 신고액 >

< '25년 3분기(누적) 신고액 >



- **(증가업종) 도・소매(유통)**(20.85억불, +122.5%), **정보통신**(17.87억불, +25.7%), **부동산**(11.04억불, +30.5%) **등**

- **(감소업종) 금융・보험**(41.26억불, △43.6%), **운수・창고**(3.56억불, △9.4%), **사업지원・임대**(0.43억불, △47.4%) **등**

□ **(건수) 서비스업**(2,291건, +6.4%)**・기타업종**(115건, +45.6%) **증가, 제조업**(377건, △1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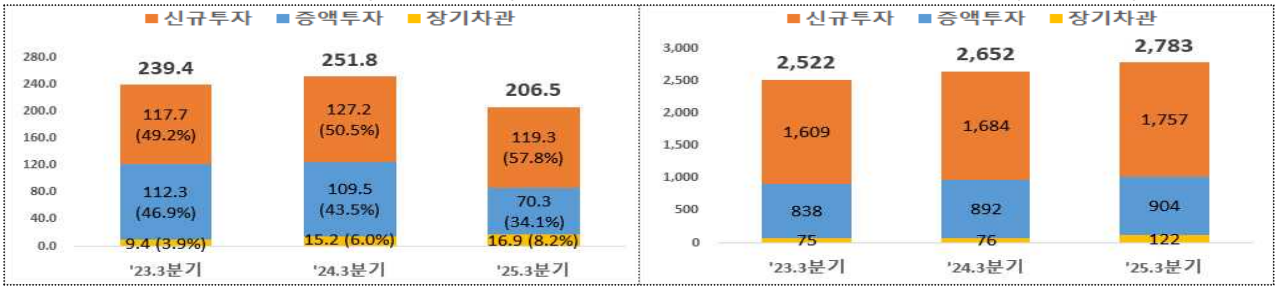
4. 자금별

□ **(금액) 신규투자**(119.3억불, △6.2%, 비중 57.8%), **증액투자**(70.3억불, △35.8%, 비중 34.1%) **감소, 장기차관**(16.9억불, +11.2%, 비중 8.2%) **증가**

* 신규투자 :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
증액투자 :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
장기차관 :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자금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자금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신규투자) 119.3억불**(전년比 △6.2%)

- **제조업**(59.0억불, △20.4%) **감소, 서비스업**(58.2억불, +14.3%) **증가**

○ **(증액투자) 70.3억불**(전년比 △35.8%)

- **제조업**(24.2억불, △38.8%), **서비스업**(42.8억불, △31.8%)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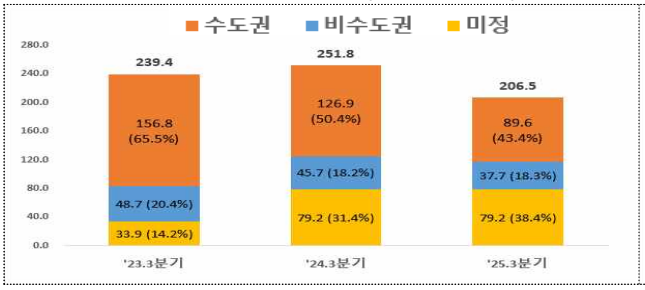
□ **(건수) 신규투자**(1,757건, +4.3%), **증액투자**(904건, +1.3%) 모두 **증가**

5.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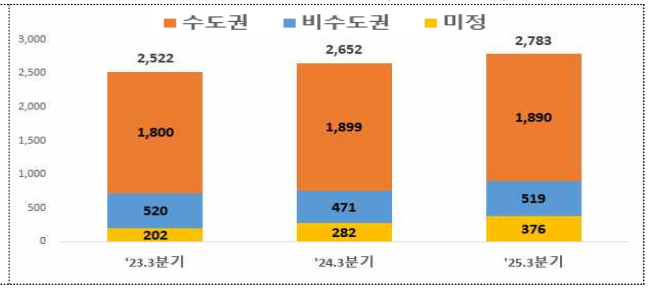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미정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금액) 수도권**(89.6억불, △29.4%, 비중 43.4%), **비수도권**(37.7억불, △17.5%, 비중 18.3%) **감소, 투자지역 미정**(79.2억불, +0.03%, 비중 38.4%) **증가**

< 지역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지역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수도권) 89.6억불**(전년比 △29.4%)

- **제조업**(11.4억불, △62.4%), **서비스업**(75.7억불, △20.3%) 모두 **감소**

* 서울(67.7억불, △32.8%), 인천(6.0억불 +295.2%), 경기(15.9억불, △35.7%)

○ **(非수도권) 37.7억불**(전년比 △17.5%)

- **제조업**(24.3억불, △21.2%) **감소, 서비스업**(9.1억불, +7.9%) **증가**

* 증가 시·도 : 전남(11.60억불, +120.2%), 부산(6.93억불, +215.4%),
경남(2.99억불, +74.7%), 울산(1.32억불, +16.6%),
세종(1.25억불, +30,460.9%), 광주(0.16억불, +138.7%),

* 감소 시·도 : 충북(4.94억불, △14.7%), 경북(3.34억불, △9.2%),
충남(2.52억불, △67.8%), 대전(1.52억불, △71.4%),
강원(0.61억불, △66.1%), 전북(0.22억불, △97.1%),
대구(0.16억불, △78.7%), 제주(0.13억불, △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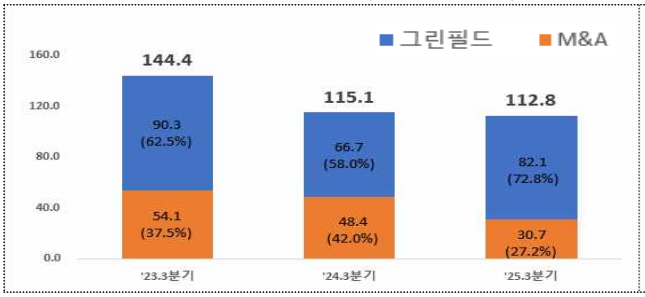
□ **(건수) 수도권**(1,890건, △0.5%) **감소, 비수도권**(519건, +10.2%) **증가**

【투자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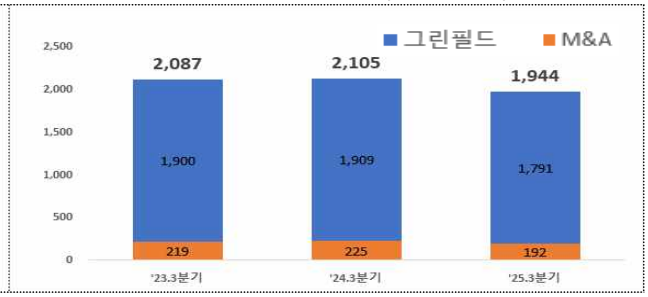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형**(82.1억불, +23.0%, 비중 72.8%) **증가, M&A형**(30.7억불, △36.5%, 비중 27.2%) **감소**

< 유형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유형별 도착건수(단위 : 건) **>**



○ **(그린필드형) 82.1억불**(전년比 +23.0%)

- **제조업**(25.2억불, △15.4%) 감소, **서비스업**(52.5억불, +57.4%) 증가

○ **(M&A형) 30.7억불**(전년比 △36.5%)

- **제조업**(4.4억불, △55.6%), **서비스업**(26.0억불, △31.1%)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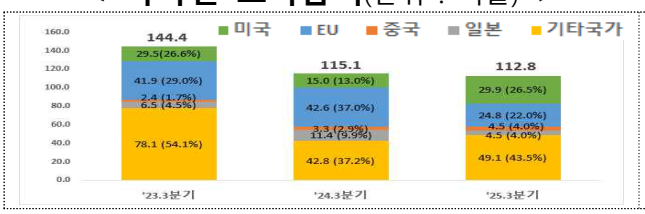
□ (건수) **그린필드**(1,791건, △6.2%), **M&A**(192건, △14.7%) 모두 **감소**

2.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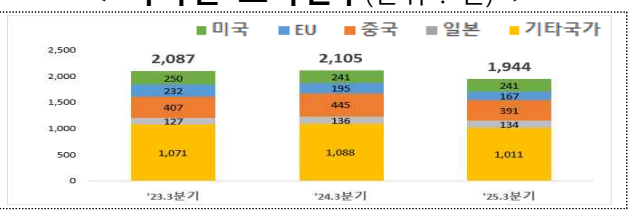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29.9억불, +99.7%, 비중 26.5%)·**중국**(4.5억불, +35.5%, 비중 4.0%) ·**기타국가**(49.1억불, +14.8%, 비중 43.5%) **증가, EU**(24.8억불, △41.8%, 비중 22.0%)·**일본**(4.5억불, △60.5%, 비중 4.0%) **감소**

< 국가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국가별 도착건수(단위 : 건) **>**



ㅇ **(미국) 29.9억불**(전년比 +99.7%, 비중 26.5%)

- **(업종) 제조업**(16.0억불, +80.4%), **서비스업**(13.9억불, +138.9%) 모두 **증가**
- **(유형) 그린필드**(28.4억불, +99.5%), **M&A**(1.6억불, +102.6%) 모두 **증가**

ㅇ **(EU) 24.8억불**(전년比 △41.8%, 비중 22.0%)

- **(업종) 제조업**(6.9억불, △41.2%), **서비스업**(15.4억불, △48.4%) 모두 **감소**
- **(유형) 그린필드**(16.8억불, △7.8%), **M&A**(8.0억불, △67.3%) 모두 **감소**

ㅇ **(중국) 4.5억불**(전년比 +35.5%, 비중 4.0%)

- **(업종) 제조업**(1.2억불, △55.4%) **감소, 서비스업**(3.3억불, +386.0%) **증가**
- **(유형) 그린필드**(4.3억불, +53.3%) **증가, M&A**(0.2억불, △56.9%) **감소**

ㅇ **(일본) 4.5억불**(전년比 △60.5%, 비중 4.0%)

- **(업종) 제조업**(1.8억불, △78.9%), **서비스업**(2.7억불, △5.8%) 모두 **감소**
- **(유형) 그린필드**(4.1억불, △48.3%), **M&A**(0.4억불, △88.1%) 모두 **감소**

ㅇ **(기타국가) 49.1억불**(전년比 +14.8%, 비중 43.5%)

- **(업종) 제조업**(3.8억불, △52.7%) **감소, 서비스업**(43.3억불, +35.6%) **증가**
- **(유형) 그린필드**(28.6억불, +21.2%), **M&A**(20.6억불, +7.0%)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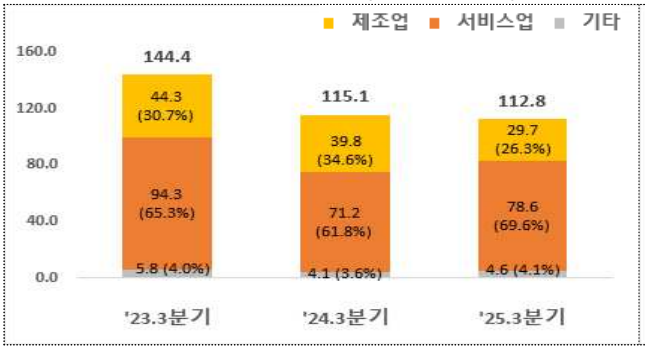
□ **(건수) 미국**(241건, -) 전년 동일, **EU**(167건, △14.4%), **중국**(391건, △12.1%), **일본**(134건, △1.5%), **기타국가**(1,011건, △7.1%) **감소**

3.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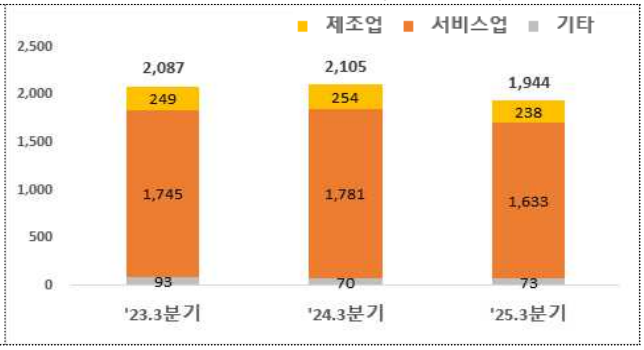
□ (금액) **제조업**(29.7억불, △25.5%, 비중 26.3%) **감소, 서비스업**(78.6억불, +10.3%, 비중 69.6%)·**기타업종**(4.6억불, +12.0%, 비중 4.1%) **증가**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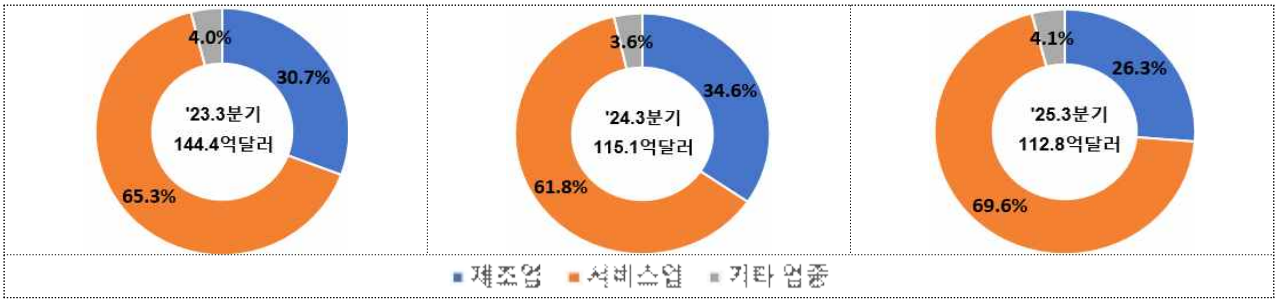
< 업종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업종별 도착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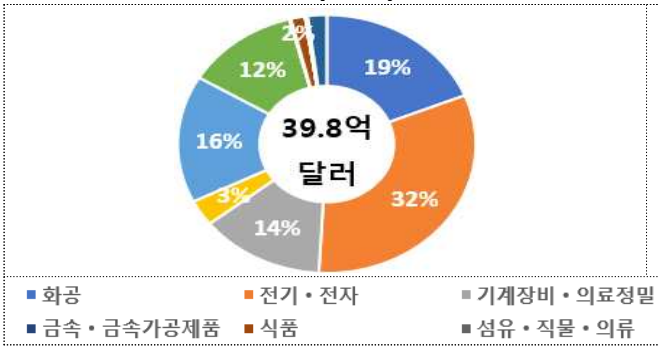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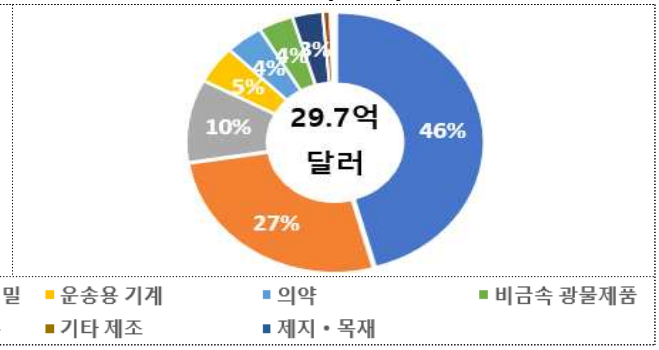


○ **(제조업) 29.7억불**(전년比 △25.5%, 비중 26.3%)

< '24년 3분기(누적) 도착액 >



< '25년 3분기(누적) 도착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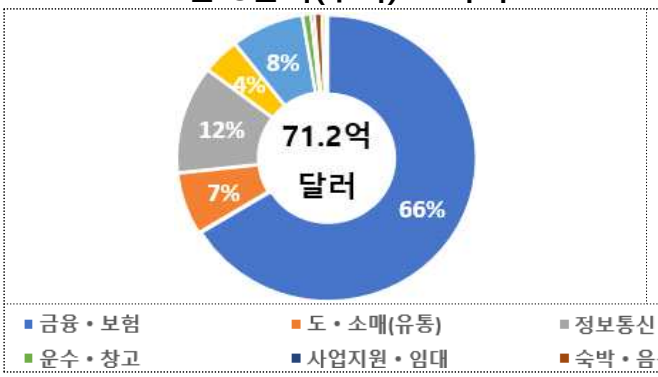


- **(증가업종) 화공**(13.57억불, +80.9%), **운송용기계**(1.38억불, +6.9%), **금속・금속가공**(0.98억불, +1,287.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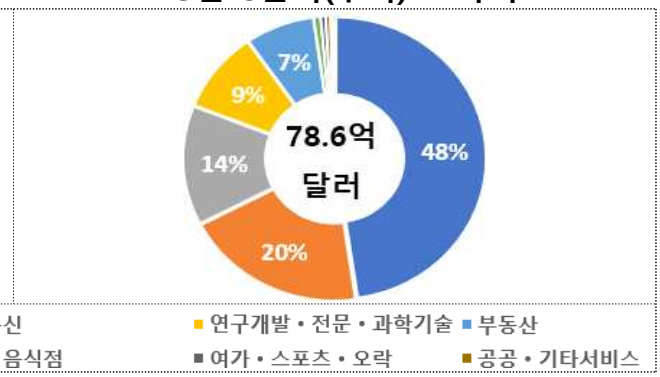
- **(감소업종) 전기・전자**(7.93억불, △37.7%), **기계장비・의료정밀**(3.06억불, △43.3%), **의약**(1.22억불, △80.8%) **등**

○ **(서비스업) 78.6억불**(전년比 +10.3%, 비중 69.6%)

< '24년 3분기(누적) 도착액 >



< '25년 3분기(누적) 도착액 >



- **(증가업종) 도・소매(유통)**(15.44억불, +210.3%), **정보통신**(10.75억불, +24.1%),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7.31억불, +152.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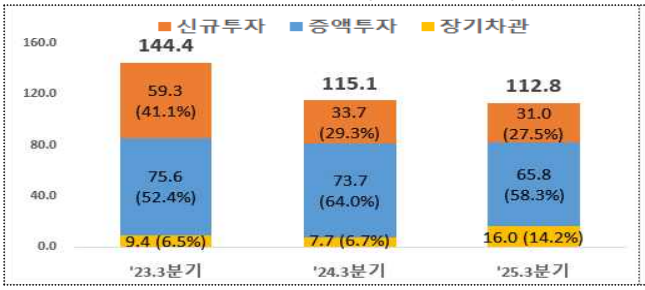
- **(감소업종) 금융・보험**(37.47억불, △20.6%), **운수・창고**(0.59억불, △7.9%), **숙박・음식**(0.41억불, △29.3%)

□ **(건수) 제조업**(238건, △6.3%)**・서비스업**(1,633건, △8.3%) **감소, 기타업종**(73건, +4.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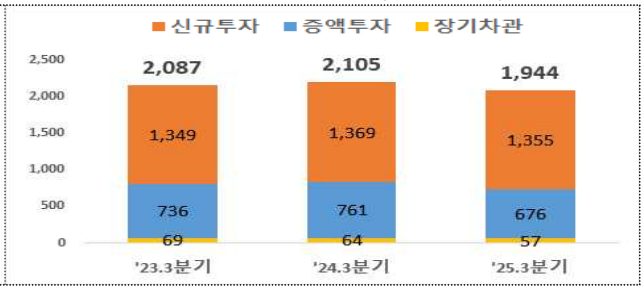
4. 자금별

□ **(금액) 신규투자**(31.0억불, △8.1%, 비중 27.5%)**・증액투자**(65.8억불, △10.7%, 비중 58.3%) **감소, 장기차관**(16.0억불, +108.3%, 비중 14.2%) **증가**

< **자금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자금별 도착건수**(단위 : 건) >



○ **(신규투자) 31.0억불**(전년比 △8.1%)

- **제조업**(3.5억불, △61.4%) **감소, 서비스업**(27.0억불, +11.6%) **증가**

○ **(증액투자) 65.8억불**(전년比 △10.7%)

- **제조업**(21.3억불, △24.5%), **서비스업**(41.2억불, △1.7%)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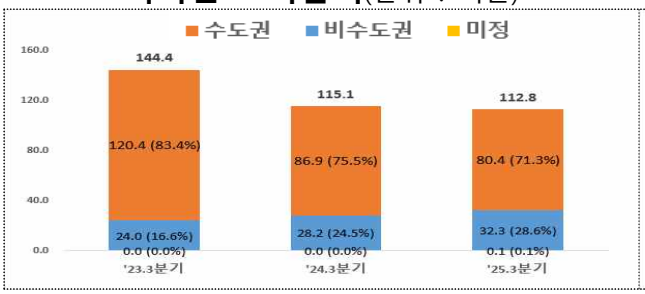
□ **(건수) 신규투자**(1,355건, △1.0%), **증액투자**(676건, △11.2%) 모두 **감소**

5.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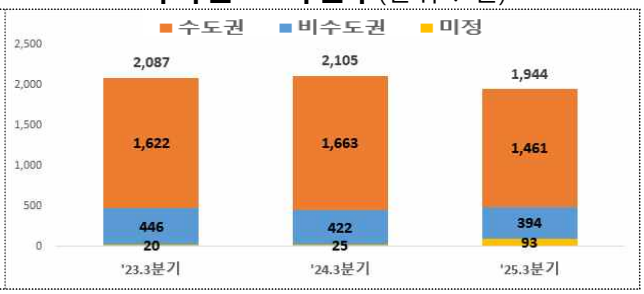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미정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도착한 경우

□ (금액) **수도권**(80.4억불, △7.4%, 비중 71.3%) **감소, 비수도권**(32.3억불, +14.7%, 비중 28.6%), **투자지역 미정**(0.1억불, +163.8%, 비중 0.1%) **증가**

< 지역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지역별 도착건수(단위 : 건) **>**



○ **(수도권) 80.4억불**(전년比 △7.4%)

- **제조업**(9.0억불, △52.3%) **감소, 서비스업**(69.3억불, +4.1%) **증가**

  * 서울(63.5억불, △2.3%), 인천(4.3억불 +138.5%), 경기(12.6억불, △37.3%)

○ **(非수도권) 32.3억불**(전년比 +14.7%)

- **제조업**(20.6억불, △1.2%) **감소, 서비스업**(9.2억불, +100.1%) **증가**

  * 증가 시·도 : 전남(11.43억불, +506.6%), 충북(5.10억불, +114.4%), 부산(3.63억불, +47.7%), 경북(2.69억불, +3.6%), 세종(1.27억불, +172,842.8%), 경남(1.03억불, +40.8%), 대구(0.87억불, +84.2%), 광주(0.13억불, +119.6%), 제주(0.12억불, +20.1%),

  * 감소 시·도 : 충남(2.68억불, △56.0%), 대전(1.49억불, △68.2%), 울산(0.88억불, △23.7%), 강원(0.73억불, △63.6%), 전북(0.26억불, △92.7%),

□ (건수) **수도권**(1,461건, △12.1%), **비수도권**(394건, △6.6%) 모두 **감소**